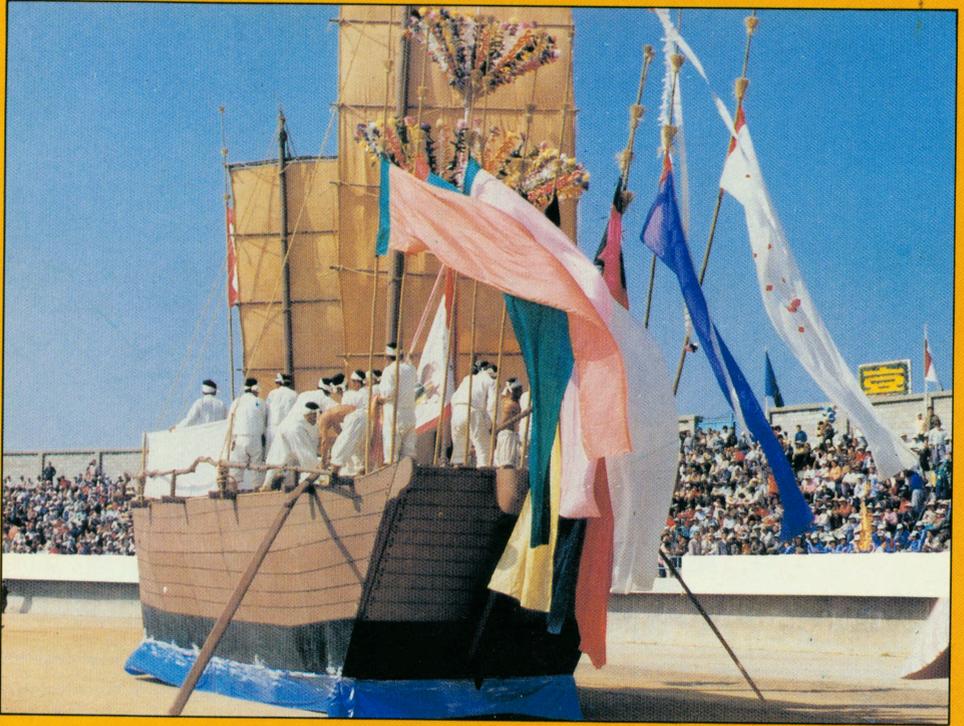


第22回 全國民俗競演大會

— 柴船 뱃놀이 —

(江華)



京畿道

目 次

1. 序 說

- 가. 概 要
- 나. 發掘經緯

2. 柴 船 배

- 가. 考 証
- 나. 特 徵
- 다. 構 造
- 라. 旗의 種類

3. 柴船 밧노래

- 가. 노래의 特徵
- 나. 시선 밧노래
- 다. 樂 譜

4. 柴船 밧놀이

- 가. 놀이의 順序(操業過程)
- 나. 進 行 圖
- 다. 人員構成

5. 結 語

1. 序 說

가. 概 要

人間은 오랜 옛날부터 바다와 밀접한 인연을 맺어왔다. 새로운 生活근거지를 찾으려는 人間の 欲望은 바다로 향하게끔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類形의 배가 만들어 졌고 뱃사람들에 의해 特有한 뱃노래가 生成되어왔다.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各 地方마다 독특한 形態의 배와 뱃노래가 만들어져 이어져 왔으며 純粹한 韓國배인 江華柴船배도 高麗時代 언젠가 부터 江華, 麻浦間을 운항하는 배로서, 이 배를 타고 麻浦까지 오르내리던 사람들에 의해 특이한 뱃노래가 불려져 오고 있다.

柴船배란 일종의 運般船 또는 商船으로서 어장에서 잡은 고기나 뿔감을 육지로 運搬하던 배였으며 江華島를 거점으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麻浦까지 運航하였다. 휴전선이 장벽을 쌓은후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漢江柴船배란 한 때 豊盛했던 漢江의 貿易을 상징해 주고 있다. 마치 거북선 모양으로 앞이 널찍한 柴船배는 한선(韓船)이라고 해서 日本배와 구별해 왔다.

現在 江華에 남아있는 柴船배로서 原形에 가까운배는 황청리에 단 한척이 있을 뿐이며 나머지 20여척은 그 대부분이 발동기를 장치하였고 內部構造도 變形되어 옛날의 장사배 구실을 떠나 짓잡이 배로 쓰이고 있다.

나. 發掘経緯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나라에는 漁夫들의 노래가 相當이 많다. 그러나 여러가지 事情에 따라 그 노래가 漸次 消滅되어가고 있는 바 仁川教育大의 金順濟 教授는 지난 72年 부터 우리나라의 뱃노래를 수집하여 오던 중 74년 8月 5日 江華郡 길상면 외포리에서 이 배에 對한 이야기와 노래를 처음 發掘하여 漢江柴船뱃노래라 이름 붙였다. 京畿道에서만 불리워지던 이 노래는 現在 그 傳授者가 외포리의 정원채씨와 황청리의 정태규 두분밖에 없는 實情이며 金順濟 教授에 의해 張師勛博士 回甲記念東洋音樂學論叢(1976년)에 <漢江 柴船뱃노래의 音樂的 分析>이란 題目으로 發表되었으며 第18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1977年)에 첫선을 보인바 있다.

2. 柴 船 배

가. 考 証

一. 漁夫들의 口傳의 說

- (1) 柴船배는 一種의 運搬船으로서 漁場에서 잡은고기를 옮겨 陸地로 運搬하던 배였다.
- (2) 漢江하류인 江華島를 근거지로하여 서울麻浦까지(解放後까지)實際로 運航하였다.
- (3) 순수한 韓國배로서 예전엔 運搬船이었으나 오늘엔 첫잡이배(主로 새우젓)로 變形되었으며 形態도 약간 變形되었고 一部 動力化 되었다.
- (4) 至今은 승선하는 漁夫들이 세대교체되어 거의 시선뱃노래를 하는 漁夫들이 없다.
- (5) 시선배는 壽命이 길지 못하며 現代化로 因해 거의 만들지 않는다.

一. 文獻上的 考証

(1) 萬機要覽財用篇

漢江위(노랑진 下流)를 왕래하는 모든 배를 京江船이라 하였고 柴缸, 松都柴缸이라 하였다.

- (2) 經國大典에 江船의 규모에 對하여 中船의 크기를 明記하고 있는데 現存하는 中船과 一致되고 있다. (길이 46尺, 넓이 9尺 以上)

(3) 朝鮮王朝 軍船研究(김재근 서울工大教授)에 따르면

가. 韓船의 키(노)는 위해서 배 앞쪽으로 꺾혔으며

나. 배의 밑바닥이 평탄하게 넓으며(西海는 갯벌로 뽕죽할수 없음)

다. 배의 甲板(골장)이 길이 方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必要한 곳만 깔았고,

라. 돛대는 눕혔다, 세웠다 하도록 되어있고

마. 製作時에는 쇠못대신 나무못으로 만들었다.

(4) 高麗時 부터 내려온 典型的인 韓國의 배로 짐작되는 바

施工方法은 朝鮮 1450 年頃(文宗時)부터 形態와 施工方法이 固定化 되었다.

- (5) 배는 逆風을 利用하여 노를 저으며 運航한다.

- (6) 壽命은 15年부터 20年間이나 되며 개삭(피삭—옆구리 측판, 장식—
 밑부분 가로지르는 못 即 개판을 말한다)을 3, 4회할 때만이 이 壽
 命을 다할 수 있다.
- (7) 시선배에는 호랑이기(虎旗)와 林慶業장군기 그리고 갖가지 色의
 깃발이 필력이며 배와 배를 연결하는 號旗가 장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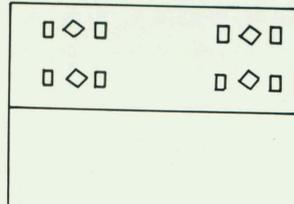
나. 特 徵

- (1) 시선배는 다른배와 달리 高麗때 부터 傳來되어온 固有의 典型의 배
 이다.
- (2) 形態는 이물(前面)과 고물(後面)이 아둔하게 뭉통하며 배의 밑바
 닻은 평탄하다. (西海는 갯벌이 있고 만조 간조차가 있어 뱃죽하면
 運航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잡은 고기를 옮겨 실으는 運搬船이다.
- (4) 승선하는 漁夫들은 힘을 돋기 爲하여 그리고 시름을 달래며 만선
 의 즐거움을 맛보던 배이다.
- (5) 韓船의 키(노)는 위에서 배 앞쪽으로 꽂혀있다.
- (6) 쇠못을 使用치 않고 나무못으로 製作했다.
- (7) 배의 돛은 둘이며 눅혔다 세웠다는 自由로움이 있다.
- (8) 역풍을 利用하여 노를 저으며 運航한다.
- (9) 시선배는 3年 或은 5年에 한 번씩 개삭(피삭—옆구리 側板, 장식
 —밑부분 가로지르는 못 即 개판)을 하여야 15年 부터 20年의 壽命
 을 유지할 수 있다.
- (10) 배의 골장(甲板)은 옆으로 必要한 것만 깔았다.

라. 旗의 種類

가. 상기

재미 있는 것은 그림과 같이 “기눈”이 네개 있는데 이것은 거센 바람에 “기”가 잘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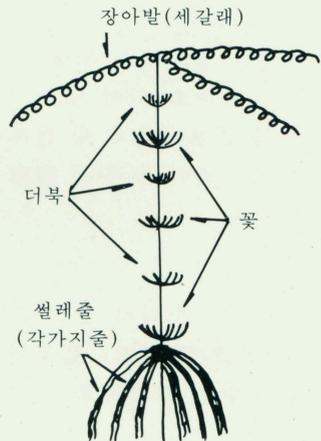


나. 여러가지 색깔의 기 : 이것은 경축을 나타내기 위한 “기”다 우리나라에는 일본 사람들의 풍습이 많이 들어와 있으며 특히 어부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것도 남해와 동해지방이 더욱 심하며 뱃노래는 물론 배에서 쓰는 용어도 일본말이 많다. “기”의 경우도 한개의 “기”에 여러색(五色)무늬를 놓은 것은 일본식이며 단색의 “기”로 된 것이 우리들의 “기”인 것이다.

다. 봉기

명칭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기”의 모양과 부속 명칭에 대하여 그림으로 설명한다.

고기를 많이 잡았거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더북의 수도 늘어난다.



3. 柴船 밧노래

가. 노래의 特徵

(1) 音樂的 要素

漁夫들의 노래는 一種의 勞動謠로 힘을 돋기 爲한 것이므로 大部分 獨唱의 앞소리(메기는 소리)와 제창의 뒷소리(받는 소리)로 이어 나간다. 특수한

어디까지나 交唱形式을 갖고 있으며 듣기 드문 唱法을 쓰고 있다.

땀을 올릴 때, 내릴 때, 노를 저을 때, 일을 끝내고 노리를 할 때 보면 韓國的인 멋과 音樂的인 要素가 많음을 본다.

(2) 音階構成

우리나라의 固有의 音階를 使用하고 있다.

시선밧노래(노젓는 노래)는 모두가 完全 4度, 短 3度, 長 2度 即 西洋音樂의 階名으로 미, 라, 도, 레, 미의 5音으로 構成되어 있어 특 징이라 하겠다. 앞소리는 뒷소리보다 音域이 넓으며 5音을 使用하나 뒷소리는 音域이 좁으며 2個의 소리만으로 이어간다.

(3) 리듬의 素材

시선 밧노래는 노를 저어가며 부르는 고로-응, 뿡等 比較的 부드러운 2박자로 되어 있으며 간간히 신코페이션을 구사 ㄹ. ㄹ의 加味하는 等 民族固有의 말 自体에서 오는 억양으로 自由自在로 表現, 앞소리와 뒷소리가 모두가 豊富한 리듬을 갖고 있어 리듬의 素材는 매우 훌륭하다.

(4) 結 論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對等한 立場에서 노래함과 5個音으로 構成, 豊富한 리듬을 가지고 自由로히 구사 시선 밧노래의 우수한 音樂性을 나타내 주고 있음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 柴船 뱃노래

바닷배 또는 他地方의 뱃노래에서 第二, 第三의 앞소리 창자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전북 고창군 선유도에서 그물 당길 때의 노래에서는 第二, 第三의 앞소리 창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시선배만은 第二, 第三의 앞소리 창자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船員이 앞소리를 교대로 메기고 나머지 선원은 뒷소리(힘내기)를 한다고 보아도 된다. 다만 제 1의 앞소리는 事實的인 데 대하여 第二, 第三의 앞소리는 군소리로 길게 앞소리를 받는 데 그 가락이 제 1의 앞소리와 對等한 입장에서 노래하며 音樂的인 要素도 豊富히 지니고 있다.

이와같이 노래 솜씨가 좋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바닷배는 위험스러운 때도 있고 操業自体도 強靱한 体力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이들이 탔기 때문에 노래도 능숙치 못했으나 시선배는 바다에 비하여 풍랑도 없고 일도 힘이 덜드는 관계로 바닷배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高齡者들이 주로 탔으므로 자연히 노래솜씨도 좋은 漁夫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아 아— 히 — 에 이 야
 야아 어서들 — 으 라 아 — 으아 예히

에이 자자 어놈의 바람은 —
 어맛차 저차

— 으 — 왜안부느냐 바람이— 들어야—
 에 이야아 어맛차 자자

노를 — 안질 걸
 에 이야아 에 어 드르르

에 이야 — 에 이 히
 어서들—으 라 아 — 으아 — 예히

손바 닷 이 — 마 부르밧데
 어자차 자차 에 이야아

音階構成

악보 번호	뒤 소 리	앞 소 리
100		
101		
102		



리듬 (Rhythm) 素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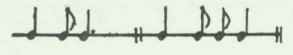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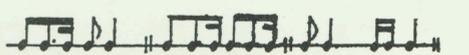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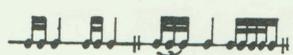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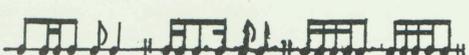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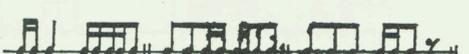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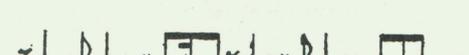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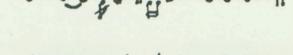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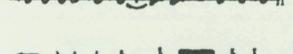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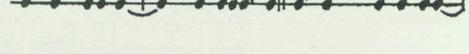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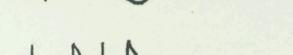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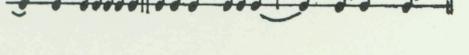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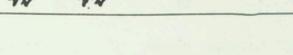
악보 번호	뒷 소 리	앞 소 리
100		
101		

악보
번호

뒷 소 리

앞 소 리

102



4. 柴船 밧놀이

가. 놀이의 順序(操業過程)

- (1) 《당굿》 出港하기에 앞서 당굿을 한다. 無事豊魚를 빌며 將軍旗 (林慶業)를 올려 받는다.
- (2) 《닷 올리는 노래》 이 노래는 他地方에서 볼 수 없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즉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교창하는 것은 다른 바닷배와 같으나 다만 다른 것은 닻을 배위로 올릴때 까지 음의 높이가 두번 바뀌는 것이다.

이들은 이것을 하청(下), 중청(中), 상청(上)이라 하는 데 하청은 닻을 올리기 시작할 때, 중청은 닻이 수상에 올라 왔을 때, 상청은 닻이 배위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 부른다. 하·중·상청은 모두 거의 같은 가락이기는 하나 하청에서 중청, 중청에서 상청으로 바뀔 때 각기 장2도(대략) 정도의 조 옮김을 한다.

그 까닭은 水中의 닻을 수상으로 올리고 또 배위까지 올리자면 그 무게가 점점 加重되므로 자연 힘을 더 써야하기에 노래의 속도도 빨라지며 소리의 높이도 올라갈 것은 당연하다.

이와같이 토막을 지어 부르는 것은 보기드문 창법이라 하겠다.

- (3) 《그물 뽑는 노래》 노를 저어 어장에 도착하여 그물을 주고 고기가 든 후 그물을 뽑는다. (이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 (4) 《바디 소리》 고기잡이 배로 부터 고기를 옮겨 실을 때 부르며, 바디란 고기를 담을 때 使用하는 도구의 이름이다.
- (5) 《시선 밧노래》 시선 밧노래편 참조
- (6) 《선상 배치기》

돈벌어 歸鄉할 때 港口에 들기전 부터 배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데 호적, 팽가리, 징, 북이 등장하며 춤으로 흥을 돋운다.

이 때 하라지에 흰직물의 배포장을 두르며 樂器를 가진 어부는 쾌자(남색옷)를 입었다.



시선 뱃놀이



(7) 《선주네 마당으로 行進》

林將軍旗와 奉旗를 先頭로 상(上)旗, 여러가지 색깔의 기를 앞세우고 樂器부대와 船員들은 그 뒤를 노래(배치기)와 춤을 추며 行進한다.

이때 봉기는 두사람이 들고 썰레줄(9개)로 봉기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좌하여 준다.

(8) 《선주집 마당에서의 배치기》

奉旗를 마당가운데 세워놓고 이를 중심으로 악기부대가 둘러서고 썰레줄과 기를 휘날리며 동네 사람들과 같이 노래(배치기)와 춤으로 흥겨운 한 때를 보낸다.

“배치기란”

西海岸과 南海岸 일부에서만 불리워지고 노래로서 뱃노래 중 가장 흥겹고 특징있는 노래다.

地方에 따라 그 명칭도 이물양, 에밀양, 봉주타령, 봉죽타령, 봉기타령, 덕타령, 헌담, 배치기등으로 불리워지는 데 이물망, 에밀양은 船首가 이물이라 불리우는 것과 잡은고기의 부피(量)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알리는 “기”라는데서 온것 같고 봉주, 봉죽, 봉기는 漢字의 奉柱, 奉竹, 奉旗에서 온것 같다.

“춤추는 모습”

이들은 즐거움에 도취되어 무질서한 춤을 춘다. 그러나 그 무질서한 곳에서도 뚜렷한 질서를 발견할 수 있으니 즉 앞소리를 메기는 동안 봉기를 향해 집결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듯하다.

뒷소리를 할때는 제각기 흩어진다.

이것은 헤어졌던 사람과의 상봉의 기쁨과 동네의 단결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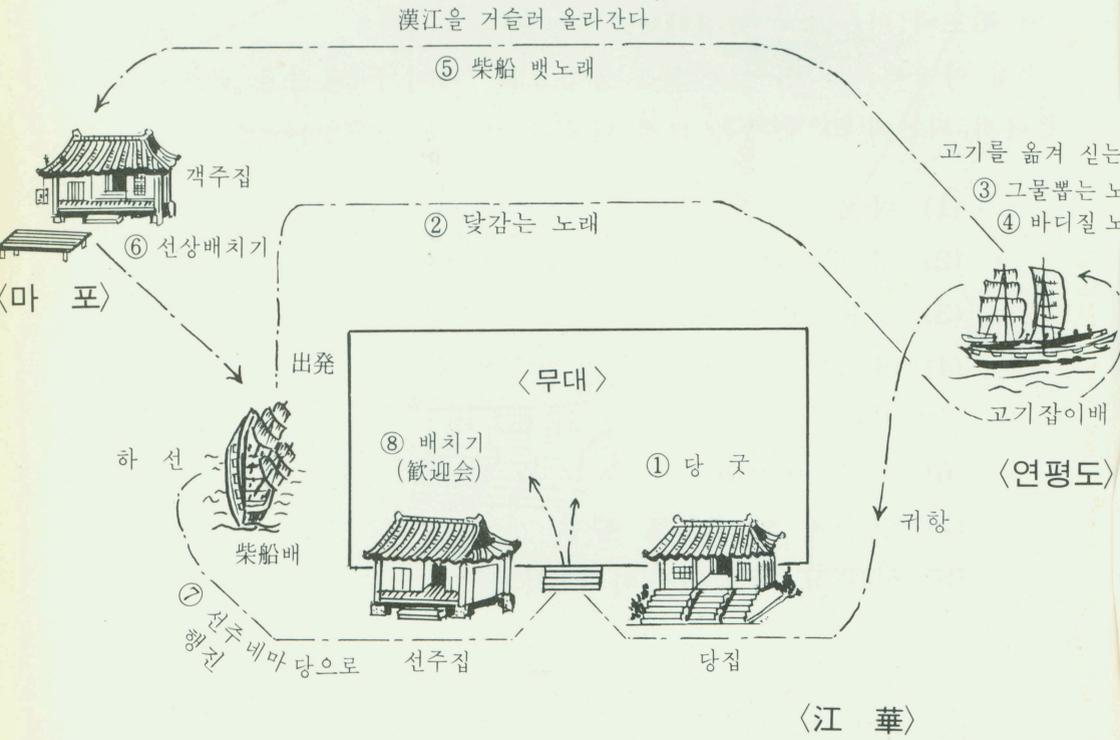
“임경업(林慶業) 장군기(旗)”

흔히 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장군을 모시는 예가 많지만 시선뱃놀이에서 林慶業장군기를 달고 그를 모시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

林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연평도에 있을 때 군량이 떨어지자 생각끝에 물이 빠진 바다에 엄나무를 꽂아 놓았다. 다음날 나가보니 고기들이 엄나무가지에 무수히 꽂혀 있더라는 것. 林장군은 고기 이름을 석어(石魚)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기이다.

나. 進行 圖

本 部 席



※ 시선뱃놀이에는 배가 두척이 등장하는 데 한척은 고기잡이배이고 다른한척은 시선 배가 된다.

(해설)

- ① 그림에서와 같이 本部席앞에 있는 당집에서 無事豊魚를 비는 곳을 먼저 시작한다. (이 때 장군기를 태려 받는다)
- ② 이어서 선원들이 배에 올라타고 닻감는 노래와 돛다는 노래가 시작된다.
- ③ 돛다는 동작이 끝나면 바다로 출발하며(시선 뱃노래가 시작된다) 고기잡이 배로부터 고기를 옮겨 실기 爲해서 그물을 주고 고기가 든 後에 그물을 뽑는다(그물뽑는 노래가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그물로 부터 고기를 바다로 퍼담는 作業이 뒤따른다(그물 바디질 노래가 시작된다)
- ④ 고기를 옮겨 실은 後 시선배는 마포로 向하게 되는 데 이 때 노젓는 노래(시선 뱃노래)가 계속된다.
- ⑤ 이윽고 歸郷하게되면 港口에 들어서기 前 부터 배위에서 호적, 팽과리, 징, 북 등이 등장하여 춤으로 興을 돋운다.
(船上배치기) 한편, 동네의 船主와 그의 婦人, 사공의 婦人은 술동이틀 이고, 춤을 추며 이들을 마중나온다.
- ⑥ 임장군旗와 봉기를 선두로 上旗, 여러가지 色갈의 旗를 앞세우고 악기부대와 船員들은 그 뒤를 노래(배치기)와 춤을 추며 行進한다.
이 때 봉기는 두사람이 들고 썰레줄(9個)로 봉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좌하여 준다.
- ⑦ 마지막으로 봉기를 船主집 마당 가운데 세워놓고 이를 중심으로 악기부대가 둘러싸고 썰레줄과 旗를 휘날리며 동네사람들과 같이 노래(배치기)와 춤으로 흥겨운 한 때를 보낸다.

